‘붓다로 살자’ 신행혁신 5년 여정

조계종 제7대 포교원, 성과 자료집 발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퇴임을 앞두고 제7대 집행부의 성과를 담은 〈신행혁신이 불교의 미래입니다〉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의 주요 종무기록 및 성과를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 임기 중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을 펼친 결과를 담았다.

제7대 집행부는 임기 동안 종단 신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강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신행혁신운동’ 전개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 △‘우리말 의례’ 보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불자들의 일상 속에 불교 의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썼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포교 및 네트워크 구축,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등 신도교육과 전법체제 개편 등도 추진해 반향을 일으켰다.

신행혁신, 〈불교성전〉 편찬 ‘결실’

제7대 포교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신행혁신운동이다. 교리와 수행법 의례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6년 ‘붓다로 살자’ 운동을 전개하고 신행일지, 리플렛, 신행안내서 등을 배포했다.

2020년에는 불자들의 계율과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대 수행법 활성화를 위해 〈불교5대수행법길라잡이〉를 발간했고, 올해 3월에는 스님용 〈불교 5대 수행법지침서〉도 펴냈다.

또한 사찰이 신도들과 지속적인 수행과 신행을 지원하도록 〈조계종 신도신행안내서〉도 발간했다.

또 신행문화 진작을 위해 불교 4대 명절마다 수행정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코로나 기간 SNS를 활용한 수행문화 정착에도 힘썼다.

사회흐름에 맞게 온라인 콘텐츠인 계층별 마음거울108, 붓다로살자 등 신행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등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다.

포교현황을 정리한 ‘전국포교지도’ 또한 신행혁신을 위한 밑작업이었다. 포교현실을 데이터화 한 이 자료는 차기 포교원과 교구본사가 지역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교구신도회 임원들이 2017년 11월 29일 붓다로살자 수행일지를 들고 웃고 있다.

신행 문화 전환 · 정착 집중
온라인 포교전법 최초 시도
차기포교원 사업 이관 준비
신행혁신 과제, 방향도 제시
3월 11일 지홍 스님 퇴임식

온라인 포교 활성화 눈길

7대 포교원은 코로나 기간 다양한 온라인 포교전법 활성화에 힘썼다.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SNS활용 상시소통 시스템 또한 가동한 바 있다. 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개설해 영상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을 통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분야에서의 불자 활동을 발굴, 장려했고, 2020년에는 고사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인큐베이팅도 직접 진행했다.

또한 청년대학생 포교 또한 강화해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에서 UCC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발굴도 나섰다.

신행혁신 정착은 과제로

포교원은 7대 집행부를 마무리하며, 〈불교성전〉의 e북 개발, 사찰에서 우리말 법회의식 진행이 가능한 〈불교의례집〉 편찬 등의 과제를 남겼다.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탈종교화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가운데 7대 포교원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들은 불교에서 근원적인 방향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종단 포교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으며, 이러한 포교원의 고민과 노력이 향후 포교의 미래를 여는 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3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7대 포교원장 지홍 스님 퇴임식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성전’ 출판 봉정식 봉행

3월 4일 정각원 법당서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불교성전〉 재개정판 출판 봉정식을 봉행했다.

3월 4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에서 열린 봉정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역경원장 혜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판된 〈불교성전〉은 지난 1972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출간한 한글본을 새롭게 펴낸 것이다. 윤성이 총장은 “〈불교성전〉은 팔만대장경의 축약본으로, 한 권으로 읽는 최초의 한글 팔만대장경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한문 번역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러운 국어로 새롭게 정비하고자 초판 발간 후 50여 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정판에는 부처님의 생애, 초기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 어록 등 불교의 핵심 내용과 생활 속에서 지혜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동국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들에게 불교정신의 핵심을 쉽게 전달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불교성전〉과 〈불교입문〉을 배부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불교성전〉 재개정판을 봉정하고 있다.

“인재양성 · 인격완성에 기여”

김중철 21대 광동중 교장 취임
광동학원 2월 25일에 취임식
일면 스님 “명품학교 만들라”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2월 25일, 광동중학교 강당에서 제20대 양승순 교장 이임식과 제21대 김중철 교장〈사진 왼쪽 두번째〉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 정은희 학부모회장, 교직원,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설재근 대외협력실장 등 참석했다. 이임한 양승순 교장은 1989년 광동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으로 깊은 불심과 건학이념 구현에 매진하였고, 교장 · 교감의 자리에 오르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광동학원은 전했다.

이날 취임한 김중철 교장은 “앞으로 학교장으로서 역대 교장선생님들과 선배교사, 학생들이 이룩해 놓은 학교 발전의 토대 위에서 명실상부한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학원의 건학이념이자 운허 스님의 크나큰 원력이신,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고 교직원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교장은 이어 “불교종립학교 교장은 교육 주체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학 이념 구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아발견’ 이라는 건학이념에 충실하고 학생들이 종교수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법회 · 수련회 · 수계식 ·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여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 문화재 답사를 통한 전통문화 지킴이 활동, 음식의 소중함과 자연 사랑을 실천하는 발우공양 체험과 빈그릇 운동 실천, 다도 예절을 통한 전통 차문화 체험, 불교 예술 작품 제작 활동 등도 다양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교장은 “광동학원은 매년 자비의 쌀 나눔 캠페인과 자비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증하고 있다. 보시정신을 실천하는 청년불자의 인격완성에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학생과 교사 간의 참여와 소통의 여건 조성으로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보람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교육 성공 모델의 명품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 취임

2월 28일 경내 지관전서 진산법회 봉행

천태종 분당 대광사 제11대 주지에 현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취임했다.

대광사는 2월 28일 오전 11시 경내 지관전에서 ‘제11대 주지 월장 스님 진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임 주지 월장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사찰 주지를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대광사를 지역민들과 신도들이 마음 편히 찾아와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도량 정비와 각종 문화행사 기획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모범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총무원 총무부장과 금강신문사 사장 등 종단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월장 스님이 주지로 취임해 앞으로 대광사를 청정도량으로 꾸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낸다면 정토의 밝은 햇빛이 대광사에 비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11대 주지에 취임한 분당 대광사 주지 월장 스님이 축하 꽃다발을 받는 모습.

승가원 덕양행신복지관 마을주민 팟캐스트 시작

참여자 10명 모집… 주1회 활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수탁운영하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플랫폼으로 마을이야기를 전하는 ‘단.팟.빵’ 참여주민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활동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 1회 진행된다. 참여자는 팟캐스트 교육, 영상크리에이터 교육, 콘텐츠 제작활동, 미디어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비용은 무료로 참여희망 지역주민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031)839-6033 노덕현 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